EDUCATION
고등

#학생부_종합_전형
#수시_합격생
#한양대_관광학부

관광학, 사학, 콘텐츠학, 철학, 도시역사경관학 등 수시 모집에 지원한 6개 대학의 학과가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지원 전형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수했다. 한양대 관광학부 신입생 손성연씨는 내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학교 안팎을 누비며 소위 '뻘짓'을 많이 한 학생이다. 인문 계열이지만, 공동 교육과정으로 〈과학사와 과학철학〉을 수강했는가 하면, 방과 후 학교 수업으로 〈확률과 통계의 활용〉을 신청해 재미있게 공부했다. 학생부를 꼼꼼히 살펴본 선생님이 "넌 무슨 학과 가려고 그러니?"라며 의아해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상향 지원이라 생각해 가장 마음 졸였던 한양대 관광학부에 최종 합격하기까지, 그의 고교 3년의 시간을 되짚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사진** 이의종

2020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17**

손성연
한양대 관광학부
경북 영광여고 졸업

수업에서 시작한 물음표, 나만의 공부 통해 느낌표로!

뚜렷한 진로 없던 1학년, 문화 해설 봉사와 만나다

고등학교 1학년, 뚜렷한 진로 희망 없이 내신에 올인했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마지 못해 언론 · 미디어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에 잘 가려면 무조건 내신부터 따야 한다는 강박이 컸어요. 잠을 줄이고 커피를 마셔가며 공부했지만, 성적은 늘 제자리였죠. 종합 전형으로 '인 서울' 하려면 진로를 한 가지 정해 학생부와 학교 활동을 그쪽으로 맞춰야 한다는 얘기에 '가짜 진로'를 만들었지만 잘될 리가 없었어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1년을 어정쩡하게 흘려보냈죠."

학급 반장이나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긴 했지만, 애정 없이 참여해 '의미'를 찾긴 어려웠다. 그나마 열의를 쏟으며 즐겁게 한 일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참여한 경북 영주 지역의 청소년 문화 해설 봉사였다.

"지역의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했던 안내와 행사 보조 봉사 활동을 계기로 지역 역사와 문화재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후 삼판서 고택에서 영주의 선비 정신과 정도전에 대해 안내하는 문화 해설 봉사를 하게 됐죠. 3년간 활동하면서 보람도 컸고 무엇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관광객들이 해설을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리하다가 정도전의 업적을 설명할 때 '도시 계획가'나 '공무원 지침서 저술' '헌법 기초 제공' 등 현대 용어에 비유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했다. 막힘 없이 해설하려면 배경지식을 더 쌓아야겠다고 생각해 삼판서와 정도전에 관한 책과 자료도 열심히 찾아 읽었다.

"판서의 성이 정, 황, 김씨로 바뀐 건 조선 초기 사회에서는 여성에게도 재산 상속이 가능했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됐고, 남녀 동등 분배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경국대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후 동양사상에 관심이 생겨 〈논어〉와 〈맹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하면서 배경지식을 쌓았고, 문화 해설이 저도 모르게 풍성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도시 재생 돕는 관광 콘텐츠에 눈뜨다

"2학년이 되자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한 가지 진로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걸요. 그 무렵 교육 블로그 '삼선슬리퍼'의 운영자인 전천석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종합 전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수시로 연락을 드려 조언을 구했죠."

영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과 지도 교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도시 참여단 활동도 성연씨의 교과 연계 심화 학습에 큰 도움이 됐다. 지역의 낙후한 재래시장 살리기를 비롯해 예술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도시 만들기와 다른 지역 견학을 병행하면서 차츰 교과 지식도 확장해갔다.

"도시 재생 선진지 견학으로 대구의 근대 골목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기 전에 역사 교과서에서 국채 보상 운동의 의의와 독립운동가 서상돈에 대해 찾아봤죠. 우리 지역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지켰던 가치 있는 장소로 '대한광복단 기념 공원'이 있더라고요. 관련 내용을 더 알아보고 싶어 '도시 재생 심포지엄'에 참가했고,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관해 조사한 뒤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죠."

소수서원과 부석사의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정도전과 영주 시내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도 냈다. 이 시기 성연씨가 작성한 보고서 중 특히 눈에 띄는 건 재래시장인 후생시장의 '황금시대 방송국 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청소년도 찾아오는 시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관심을 끌 만한 VR 가상현실과 3D펜 체험 활동을 구상했어요. 후생시장의 전성기인 1970년대를 추억하는 의미로 옛 교복 입기·딱지치기·달고나 체험 부스 설치도 제안해 실제로 축제에 반영했고요. 다행히 현장 반응이 좋아 기뻤어요. 축제 기획의 재미와 즐거움,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사와 과학철학〉 〈코딩〉 수업에 도전하다

2학년 시기를 돌아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경험은 바로 〈과학사와 과학철학〉과 〈코딩〉 수업과의 만남이다.

"〈과학사와 과학철학〉은 공동 교육과정으로 수강했어요. 인문 계열 중에서 신청한 학생은 제가 유일해서 '왜 문과생이 이과 수업을 듣냐' '딴짓하지 말고 내신이나 잘 챙겨라'라는 주변 반응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들을수록 나도 모르게 '아니야, 이게 바로 종합 전형으로 가는 길이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자'라는 오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과학사와 과학철학〉 수업에서 배운 과학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독서와 문법〉 시간에 〈과학 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찾

아 읽다가 한 줄의 문장에 의문이 생겼다. "사회과학이 그러한 패러다임을 얼마나 획득했는가는 미결로 남아 있다"는 구절에서 '사회과학에 확고한 패러다임이 정립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갈등론, 진화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바로 패러다임 정립 전 의견 불일치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각 이론에도 단점이 있으니 하나의 이론이 모든 사회를 재단하는 틀이 돼선 안 되잖아요. 객관적인 과학 현상을 주관적인 사회탐구에 적용할 땐 차이를 명확히 알고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고대부터 이어진 사상 다툼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이유도 유일한 사상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해서 아닐까' '여러 사상이 존재해야 우리 사회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 아닐까' 등의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2학기 방과 후 학교 교양 수업으로 수강한 〈코딩〉과 야간 방과후 특강으로 신청한 〈C언어를 이용한 아두노이드 기반의 프로그램 작성〉 수업도 성연씨에겐 특별한 경험이었다.

"〈빅데이터,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책을 읽고 수학 독후감 쓰기를 했는데, 구글에서 행복을 주제로 검색한 결과 국가별 검색 횟수에서 상위를 차지한 나라가 세계 행복지수 상위 국가와 거의 일치해 신기했어요. 후속 활동으로 방과 후 학교 수업으로 개설된 〈확률과 통계의 활용〉을 신청해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아직 진로 못 정했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공부를 즐겁게 좇다 보니 어느새 교과 평균 등급이 2.0으로 상승해 있었다. 하지만 3학년이 되자 본격적인 입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뚜렷한 진로를 정하고 학교생활을 하지 않아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수시 원서를 쓸 때 한 학과만 고집하지 않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하니 의외로 쉽게 풀리더라고요. 지역 문화재 탐구 활동과 관련해선 사학과에, 문·이과 융합 학문에 대한 관심은 융합콘텐츠학과에, 문화 해설 봉사를 계기로 동양사상에 관심을 갖고 〈과학사와 과학철학사〉 공부를 한 건 철학과에 맞춰 지원해볼 만하겠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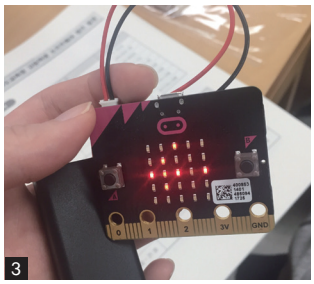
특히 2학년 활동의 연장선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수행평가에 공을 들였다. 예를 들어 영어 수행평가로 〈수능특강〉 교재 지문의 주제에 맞춰 영작 활동을 할 땐, 도시 재생 동아리 활동과 연관 깊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결과물을 제출하는 식이었다. 〈과학사와 과학철학〉 시간에 배운 3D 프린팅 기술과 문화재 해설 봉사에 미적분의 수학적 개념까지 어우러진 수학 보고서는 2학년 학생부 세특에 기록됐다. 〈법과 정치〉 수행평가 시간에는 도시 재생 활동을 하며 접한 젠트리피케이션에서 힌트를 얻어 관련 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대학에 들어와 수강한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나 〈신융합 관광의 이해〉 과목은 고등학교 때 제가 진행한 탐구 활동이나 보고서 주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재미있었어요. 관광학이 저와 잘 맞긴 하지만,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도시공학이나 경영학을 다중 전공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경영〉 수업 시간에 관광 벤처 기업을 조사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스타트업 기업에도 관심이 생겼고요."

나중에 정말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학과 성적도 잘 유지하는 중이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후배가 있다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종합 전형에 대해 한 가지 진로로 좁혀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는 편견도 버렸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공부나 활동을 꾸준히 해놓았다가 나중에 그것들을 잘 엮기만 하면 돼요. 기왕이면 교과목과 동떨어진 활동보다는 수업 안에서 시작한 물음표를 나만의 공부를 통해 느낌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1 도시 재생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도시 재생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PPT 자료. 영주 지역의 소수서원과 부석사의 유네스코 등재를 제안하고, 정도전과 시내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형태를 제시했다.



2 삼판서 고택 해설 봉사를 하는 모습. 외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쉽고 친근하게 해설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3 소프트웨어캠프에 참여해 만든 마이크로 비트. 기획자의 역할을 맡아 팀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이끌면서 어둡고 위험한 학교 귀갓길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시제품을 만들었다.

학생부

1학년

■ **창의적 체험 활동** 지역의 독립운동 기념단체의 홍보 팸플릿 제작 배부 봉사. 삼판서 고택에서 영주의 선비 정신과 정도전에 대해 해설하는 청소년 문화 해설 봉사 활동

■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사회〉 '옥스퍼드 행복 지수 측정 설문지'를 이용해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가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을 학업에 대한 강박관념이라고 밝힘. 친구들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해 긍정적 사고의 가치를 알리고 웃음 가득한 수업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

2학년

■ **창의적 체험 활동** '소프트웨어캠프'에 참가해 마이크로 비트를 활용한 3인 1조 해커톤 프로그램에서 기획을 맡음. 청소년 도시 참여단 활동에서 도시 재생 선진지 견학으로 창원을 방문한 후, 과거의 고추시장 콘셉트를 살려 영주 지역 재래시장인 후생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독서와 문법〉 공동 교육과정에서 배운 과학 혁명의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과학 혁명의 구조〉를 읽음. 과학 혁명의 발생 단계를 챕터별로 분류해 도식화하고 핵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치며 완독

3학년

■ **창의적 체험 활동** 청소년 도시 참여단 동아리 활동에서 학교 인근의 근대 역사 골목을 탐방하면서 관련 안내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사이트에 안내판 설치를 건의해 설치 예정 답변을 받음

■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수학연습 I〉 〈상상이 현실이 되는 3D 프린팅〉이라는 책을 읽고 3D 프린팅의 원리와 사용 분야 등을 알아본 뒤, 인터넷에서 구한 '영주 부석사 석등' 모델링 파일을 출력하고 미적분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참고 보고서를 작성. 〈사회·문화〉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 단원을 배우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영화 〈설국열차〉에서 앞 칸의 지배 계층과 꼬리 칸의 피지배 계층의 투쟁과 혁명 등을 비교하는 '마르크스가 감상한 〈설국열차〉' 보고서를 작성함

자기소개서

■ **1번 학습 경험** 미국에서 저소득층 아이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 직원이 해고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한국의 무상급식과 다른 정책을 펴는 근거가 궁금해 〈생활과 윤리〉 시간에 배운 분배 정의를 떠올려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노직, 롤스, 아리스토텔레스, 샌델이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예상해 '사회정의와 무상급식' 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을 적었다.

■ **2번 교내 활동** 삼판서 고택 해설 봉사를 통해 배경지식이 발표 능력과 이해에 좌우된다는 점을 깨달은 경험, 막힘 없는 문화 해설을 위해 삼판서와 정도전에 관한 책을 읽고 자료를 찾은 경험을 정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황금시대 방송국 축제 기획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할지 깨달은 점 등을 제시했다.

■ **4번 지원 동기** 청소년 도시 참여단과 문화 해설 봉사를 통해 독창적인 시각으로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내용을 정리. 도시 재생 심포지엄에서 부석사, 선비촌, 소수서원의 이미지를 영주 시내까지 연장해 지역의 역사 자원과 결합시켜 콘텐츠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과정을 전했다. ⓝ

*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아 타 대학 지원 시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정리했다.

교사의 시선으로 본 수시 합격생

"득실 따지기보다 배우고 싶은 수업에 주저 없이 도전"

성연이는 야간 방과 후 특강으로 진행한 제 수업에서 뛰어난 아두노이드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인 학생이었어요. 수강 학생 중 성연이가 유일한 인문 계열 학생이란 걸 알고 한 번 더 놀랐죠. 자주 실수하는 작성 코드들을 모아 메모했다가 친구들의 코드 오류 찾기를 도울 정도로 배려심이 많았어요. 수업 시간에 빛 센서를 활용해 가로등을 만들고, 피에조 센서로 도난 경보기를 제작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도 성연이는 두각을 나타냈죠. 이 수업을 들으면 내게 득일까 실일까 현실적으로 따지기 쉬운데, 성연이는 배우고 싶은 학문에 주저 없이 도전하는 학생이었어요. 요즘 주목받는 문과와 이과를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가 바로 성연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관광 산업이나 문화콘텐츠, 도시 재생 분야 할 것 없이 어느 곳에서든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낼 성연이의 내일이 참 기대됩니다.

_ 정보 담당 경북 영광여고 최승현 교사